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심리 37개월만에 최고

CCSI 101.5로 6.8P 상승...코로나 이후 첫 100 상회 새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반영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7개월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지난 3년 동안 지역민들이 코로나19 여파에 이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 경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했지만, 새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 등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소비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광주·전남지역 CCSI는 101.5로 전월

(94.7) 대비 6.8포인트(p) 상승했다. CCSI는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 20년간의 최소·최대값을 제외한 평균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높으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앞서 광주·전남 CCSI는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대출, 소비 부진, 국제 정세 악화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3년이 넘도록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80선마저 무너졌고, 올 초까지도 2월(84.5)과 3월(87.1)까지 회복세를 보였지만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이 이슈로 떠오르며 5월에는 94.7로 대폭 회복됐고,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전남지역의 주요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발전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이달 지역민들의 지역 경기 부흥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지수별 기여도 상승폭을 보면 향후경기전망(+2.0p)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0.5

p), 생활형편전망(+1.3p), 가계수입전망(+1.1p), 소비지출전망(+0.7p), 현재경기판단(+1.1p) 등 모든 지표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리지수(CSI)별 상승폭을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향후 광주·전남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소비지출전망CSI에서 광주는 107로 전월(104)보다 3p나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CSI도 광주와 전남이 12p와 22p씩 오른 102, 110을 기록했다.

특히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감으로 취업기회전망CSI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3p, 18p 큰 폭으로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중기 안전관리 지원 다음달부터 공동안전관리 사업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안전전문가(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광주경총은 올해 현장 밀착형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경총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 내 고위험 업종 대상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속 태우는 금호타이어 화재 한 달 넘도록 무책임한 침묵

주민공청회 노사 모두 불참 비판 시민단체 등 보상·공장 이전 촉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이 다음달 중으로 화재 수습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의 피해 보상·공장 이전 의견을 듣는 주민 공청회에 금호타이어 노사 모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공청회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26일 광주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보상 및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고 200여명의 주민들과 화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공청회에는 금호타이어 사측은 물론 노조 관계자까지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발생한 대규모 화재 이후 지역 내 불안과 주민 피해가 확산하는 상

황에서 마련됐다.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로 인해 공장 정상화까지 최대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직원 2300여명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인근 주택과 아파트,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보상책과 함께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청회의 핵심 당사자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행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팔용 광산구 안전교통국장, 김영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 2노조 관계자는 패널로 이름을 올리고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장 이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주체는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인데, 이들이 모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광주시가 공장 이전과 관련한 토지 용도 변경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없어 진척된 논의는 이



김팔용 광산구 안전교통국장이 26일 광주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보상 및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뤄지지 않았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공장 이전을 하려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광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며 "금호타이어가 7월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 공장 신축 또는 이전 계획을 포함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날 시민운동본부에 입장문

을 보내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인·대물 등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청회 불참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화재 사고 수사와 공장 피해 조사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에 있다. 조만간 수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구직자 10명 중 8명 "구직난 지난해보다 악화"

올 상반기 취업시장에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보다 구직난이 더 악화된 것으로 느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26일 발표한 '상반기 체감 구직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직자의 83.1%가 지난해보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예년과 비슷했다'와 '완화됐다'는 각각 14.9%, 2% 수준에 머물렀다.

구직자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형태별로 구직난 악화 비중은 중박달면 기준 대기업이 86.4%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5.5%), 중소기업(82.9%) 순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구직이 어려웠다. 다만, 외국계기업은 71%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가 적거나 없어서'(55.5%)를 구직난이 지난해보다 심화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35.4%)', '지질 경쟁률이 높아져서'(34.1%)', '기업별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33.9%)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올 하반기 취업 시장에서도 구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직난이 '여전한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48.9%에 달했고, '심화될 것' 역시 38.4%를 차지했다. 반면 구직난이 '완화될 것' 항목은 12.7%의 구직자만 선택했다. 올 하반기 구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서'(53.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중 구직 경험이 있는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자외선차단제 6종, 근거 없이 기능성 광고"

소비자원 "성분 꼼꼼한 확인 필요"

여름 시즌을 맞아 자외선차단제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몰 울트라 페이스 미스트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자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 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

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비전 이지에프스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4종 제품의 사업자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쓰인 4-메틸벤질리텐캠퍼(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 등 새벽배송 활성화 SSG닷컴 특별 이벤트 진행

SSG닷컴은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새벽배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SG닷컴은 행사기간 중 새벽배송으로 6만원 이상 주문 시 '프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1L(퓨어 레몬)'을 증정한다.

프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는 세정력과 기름 제거 효과 뿐만 아니라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으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이벤트 대상 지역은 광주시,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SSG 새벽배송 가능 지역이다. 이벤트 대상자가 사은품 선택 화면에서 증정품을 선택하면 새벽배송 물품과 함께 배송되는 방식으로, 밤 10시 이전에 새벽배송 주문 시 다음날 아침 7시 내 도착할 예정이다.

윤미주 SSG닷컴 그로스리마켓팅파트장은 "광주를 비롯한 새롭게 새벽배송 서비스를 런칭한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79.56 (-28.69)
↓ 코스닥	787.95 (-10.26)
↓ 금리 (국고채 399년)	2.454 (-0.006)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54.85 (-7.55)



이덕현(왼쪽부터)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재강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이 지난 25일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열린 이동약자 섬·바다 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장애인 편의 장치 장착된 특수 차량 이동 약자와 변산반도·한려해상 달려요

국립공원과 여행 지원 업무협약

기아가 특수 장애인 편의 장치 장착된 특수 제작 차량을 활용해 이동 약자의 섬·바다 여행을 지원한다.

기아는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이동 약자 섬·바다 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되며 2027년 10월까지 3년간 총 150팀이 참여할 수 있다.

기아는 8월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8팀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장애인 1명을 포함한 최대 4인 1팀을 구성해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아는 참여자들에게 장애인 편의장치 장착 카니발 1대(최대 3박 4일)와 유류비, 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운전기사와 수어 통역사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숙박(1박 2일)과 섬 트레킹, 요트 투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기아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이동 약자 전용 차량인 PV5 WAV를 초록여행에 투입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2012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초록여행을 시작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누적 이용객은 이달 기준 10만여명에 달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헌터 레인부츠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헌터' 직원이 다양한 색상의 레인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에 있는 헌터는 이른 장마에 대비해 레인부츠, 우산,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오리지널 플레이 슛 레인부츠', '오리지널 플레이 롤 레인부츠', '워터 리퍼런트 패커블 판초'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